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4월 21일 (제99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부활

잘 익어가는 과일
 떠날 준비 화장할 때
 참 아름다움
 신부 탄장과 무엇이 다를까

떠날 때
 맛과 향기 남기고 사라지나
 서글퍼 우는 것 못 보았네
 밭그레 수줍은 듯
 좋아라 웃드라
 왜냐고 물으니
 이 땅에 씨앗을 남김이 좋아서란다
 나무로 다시 태어날 걸 알기에 서글퍼 울지 않는단다

여보게!
 우리네 인생도
 떠날 시간 가까움 알면
 단장하거나
 과일만도 못하면 되겠나
 서글퍼 말고
 다시 태어날 생각하며
 세상에 있을 때
 병든 과일 버림받듯 버림받지 말게나
 흠도
 점도 없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익어가세나

예수 향기 남기며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세, 우리...

朋友

봉 우 컬 럼

부활절을 맞으며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 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 하게 기도합니다/ 내 가야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 든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 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 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사실 춘계산상집회를 앞두고 마음이 곤 고했었다. 할 일은 많은데, 열정도 예전 그대로인데 70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버 거워하는 내 육체 때문이었다. 그때 지 인이 보내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이 찬송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새 힘 을 주었다. “주여, 내 가야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매일 이 찬송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 집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이 찬송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 가를 지신 예수님의 애끓는 기도다. 우리 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당할 고

난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록 기도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위대함은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에 있다. 당신은 이 잔을 피하 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 고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이다. 참 신앙이 무엇일까? 바로 ‘자기의 십자 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란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이나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의지를 버리고, 내 이론 과 학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 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내 뜻과 상반된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따르는 것이 참 신앙이다. 우리 예

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34년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사흘 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도 동일하게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죽음 다음의 부활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죽 었던 기업이, 죽었던 교회가, 죽었던 가 정이, 죽었던 육체가..., 모든 것이 살아 나게 된다. 부활절이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된 것! 내 뜻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 각으로 부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人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곧 저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수치와 모욕 앞에서 잠잠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다 버리고 별거벗긴 채로 가시면서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성공하는 세일즈맨은 거절당했을 때부터 뚝다

자존심이란, 스스로 자(自), 높을 존(尊), 마음 심(心)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며,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당이에 종기가 난 여자 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고 했으나 남자의사인 터라 두 여자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살고보자는 심정으로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치료해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망측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왔고, 종기가 악성으로 발전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누가 현명한 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리아의 군대장관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갑옷과 투구만 벗으면 진물이 줄줄 흐르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은 작은 히브리 계집을 통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아람왕의 선처를 입어 이스라엘 땅으로 문둥병을 치료하러 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맞이하기는커녕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만 합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노할 수밖에요.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 나와 자기를 맞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환을 보내어 더러운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으라고 하니 명색이 군사령관으로서 자존심이 무지 상했습니다. 그래

서 이들을 진멸하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왕하5:13). 즉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야 그깟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떠냐?’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어린 아이 살처럼 되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위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그래서 늘 애가 탔 습니다. 그런 그 녀에게 예 수님의 소문 이 들 렸 고, 그 녀는 물어 물어 예수님을 찾아와 딸이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고 하신 겁니다. 졸지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 다. “주여 웬소리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라고 답했습니다. ‘자식이 낫기만 한다면 개가 된들 어떠냐? 자존심 따위가 대수냐?’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냥 못해준다고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까지 경멸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하다 ‘이것은 테스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집회 때였습니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케이프타운 공항에 도착했는데 영접 나온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사와 낡은 봉고차 한 대만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그곳

의 영적 대부인 로버츠 목사의 초청으로 갔는데 말입니다. 이에 우리 일행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목사님이 이 먼 길을 왔는데...’ 하며 분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일행에게 “남아공의 영적 대부라는 분이 나를 테스트해보지 않겠니?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내 자존심 좀 밝히면 어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귀신이 떠나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자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1년 집회 때는 그분이 노구를 이끌고 2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나를 영접해주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성공을 이룬 것은 성도들에게 잘못했을 때 조차 목사의 입네

하 며 권 위를 내 세운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 꿇어 용서를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자존심을 못 버려서 핑계만 댔지만, 다윗은 문무백관들이 있건 없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자존심 부러봐야 승진만 못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존심 내세워봐야 가정만 시끄럽습니다. 한(漢)나라의 개국공신인 한신 장군이 어린 시절, 자존심을 버리고 동네 강패의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는 수모를 참아냈기에 훗날 항우를 제압하고 유방과 함께 한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오늘날의 싱가포르가 세계 부국으로 자리 잡은 것도 초대 총리 리관유가 자존심을 버리고 선진 열강에 원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며, 지금의 대한민국도 선진국은 물론 압제했던 일본에게까지 가서 배우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자기

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나마 잘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 큰소리 치고 나왔는데 죽어도 못 들어가.’ 그러면서 계속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나 먹으며 살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러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자존심을 버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기만 하면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쏟아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고, 진솔하게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래봐도 내가 박산데’,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사장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일 뿐입니다(잠18:12).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져라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자녀에게도 위엄만 부리지 말고 대화해보세요. 서로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목산데.” 이러지 마시고 낮은 자세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세요. 성도들 역시 마음을 비우고 목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거래처와 자존심 대결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역시 원한을 풀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고(눅18:1~8), 여행 중에 찾아온 벼를 위하여 떡을 강청한 사람 역시 자존심을 버려 목적을 이뤘음을 기억하세요(눅11:5~8). 아울러 왕비 와스디가 자존심을 부리다 아하수세로 왕에게 버림받았음도 기억하세요. 살다보면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충심교회

:: 객원컬럼 ::

:: From Internet ::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신앙은 현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를 위해 있는 것이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병이 낫는 등 여러 체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곧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이다. 앓은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뗐다 할지라도 이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에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에서의 날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 땅에서 도무지 응답받는 일이 없고 성공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날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여름에 그토록 무성하던 나무도 가을에는 반드시 단풍이 진다.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러다 봄이 돌아오면 다시 새잎이 돌아난다. 현재 가난한 사람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성공할 때가 있다. 또한 오늘 성공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낙엽 지듯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귀신의 최종목적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업에 실패케 하는 것도 아니다. 귀신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병으로

고통을 주고, 또 가난하게 만들어 예수를 포기하게 하려고 귀신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롬8:35~39).

성경은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고 추궁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곧 복음은 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영혼을 도모하며, 또 소망을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발견했다. 그러기에 그는 육신에 유익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한 자가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큰 재산이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자기의 전성기라 극성을 부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전성기가 곧 도래된다. 그때는 우리의 영원한 전성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고난 받는 종이지만 예수 오시는 날, 우리는 왕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로 시작한 그 마지막 결과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오늘 하세요!

뉴햄프셔의 어느 골동품 가게에 자주 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이 가게에서 자주 고가구를 사가곤 했다. 하루는 그 노인이 왔다 간 뒤 골동품 상인의 아내는, “자주 느끼는 거지만, 저 분이 왔다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 얘기를 저분께 꼭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다음번에 그 분이 들르면 직접 그렇게 말해 줍시다.”라고 답했다.

여름이 되자, 한 젊은 여성이 골동품 가게에 찾아왔다. 그 노인의 딸이라고 자신을 밝힌 여성은 얼마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며, 평소 아버지가 자주 다니던 가게에 와보고 싶었다고 했다. 골동품 상인의 아내는 놀라며, 그 노신사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가게에 왔을 때 남편과 자기가 나눈 얘기를 딸에게 들려주었다. 젊은 여성은 두 눈에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 말을 직접 들었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눈을 감으셨더라면 무척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 딸이 돌아간 뒤 골동품 가게의 부부는 말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일이든, 좋은 말이든 미루지 말고 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을 전하고, 오늘 용서를 구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달려가 만나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지금(Now),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중심편집실



:: 겨자씨만한 믿음 ::

진실하게 살자

여보게!

솔직히 묵회는 정말 쉽다네. 어렵다면 정직하기가 어렵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렵지, 묵회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닐세.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 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체하고, 죄 지으면서 거룩한 체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주의 종도 사람인데 어찌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론 아닌 척, 안 그런 척할 때도 있지. 그러나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살아야 하기에 힘든 거라네.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고 나는 누누이 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하네. 그렇게 말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는 위선자가 아니겠나.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못하지는 않지만 안 하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나와 늘 싸우지. 그런데 나와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거 마련 아니겠나.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방법을 택했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속내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거짓된 삶을 살 수 없게 되

니까.

사람들은 CCTV나 핸드폰의 카메라는 두려워하지. 그래서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쓰레기도 잘 안 버리고, 불법주차도 안 하고, 그 앞에서는 나쁜 짓도 절제하지. 또 언제든 핸드폰 카메라에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다들 주의하지. 들키면 보응이 따르고 체면도 구기게 되니까.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없는,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라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종된 자들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라네.

여보게!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라네(요8:44). 거짓말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거짓과 담을 쌓아야 하네. 그러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네.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朋友

믿음을 보살피자

우리 집 베란다에는 다양한 식물이 봄을 맞아 푸르르다. 약 한 달 정도부터 나에게 식물을 키우는 취미가 생겨 관심을 갖고 정성껏 가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식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식물은 햇빛과 물만 주면 자연이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 자연이 알아서 키운다고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잎사귀를 정리하지 않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거나 새로운 잎사귀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고, 가끔 화분 방향을 돌려주지 않으면 햇빛 방향으로만 꺾여서 자라고, 가지치기를 안 하면 얼마간은 잘 자라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수형이 엉망이 되어 볼품도 없어지고 건강하지 못했다.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고 보살피니 다행스럽게도 식물들이 건강해졌고 꽃도 피었다.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그 무렵,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해주었는데, 꽃다발이 아주 향기롭고 화려했다. 그러나 나의 애정은 그 꽃보다는 내가 기른 꽃에 있었고, 꽃다발의 꽃은 오래되지 않아 시들고 말았다.

믿음도 식물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

다. 믿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잘 자라게 된다. 기도로 물을 주고, 성경을 상고하며 가지를 쳐주고,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 삼아야 한다. 또한 봉사과 헌신을 통해 올곧은 믿음이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목사님을 보더라도 하루 4시간 기도는 기본이요, 많게는 7시간을 기도하신다. 또한 늘 어디에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주변에 놔두고 항상 읽으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신다.

세상의 지식은 마치 아내에게 선물해준 꽃다발과 같아 아주 아름답지만 바로 시들어 추해지고 결국 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꽃이 만발하도록, 믿음이 장성하여 열매를 맺도록 늘 신앙을 점검하고 관리하자. 화분에 꽃이 필 때 기쁨이 일고 집안이 화사해지듯, 믿음의 꽃이 만발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리라.

김성일 성도
cre8tor@naver.com

목사님을 위한 기도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 34년의 삶을 송두리째 당신께 드리
고, 무지한 저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당
신께 인도하기 위해 그의 육체 어느 한
곳도 편했던 삶은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이 되어 우리
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했고, 그의 생각
은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향한 기도로
가득했으며, 그의 시간은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존음을 아끼며 생
활했고, 여유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는 말하면서 그에게 여유라는 사치도 없
었습니다.
주님,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명령하
신 지상명령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지구
촌의 수많은 택한 백성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어느 한시라도 기도 없이 살 수
.....

Good News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
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하
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십
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기록들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소상하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
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던 무
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감람산에서

없었던 분입니다.
주님, 그는 주님께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그분이 필요합
니다. 주님 대신에 저희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주님 대신에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주님 대신에 저희들의 병을
위해 간구했으며, 주님 대신에 저희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 가르쳤으며, 주님 대신
에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의 심장이
34년 젊어지게 하옵시고, 그분의 머리끝
부터 발끝까지 기관 세포 신경마디가 되
살아나게 하옵시고, 오장육부가 34년 젊
어지게 하옵소서. 그분은 원하지 않을지
라도 저희는 아직 그분이 필요합니다. 주
님을 위해 살았던 그분의 34년을 다시금
되돌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수많
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종으로 그분을 택
하셨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
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초

500문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 그 목격자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시절에도 상당수가 생존하
고 있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의 역사서 요세푸
스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의 지
방총독 플리니와 루기안의 문서와 바벨
론의 탈무드 등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
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
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
만이 유일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에

석 목사님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고 하십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아
직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자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
다 물결 같고, 환난이 오면 주님을 자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해주신 그분이 저
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고
새와 같지만, 주님은 보리떡을 강령하라
고 하셨으니 저희의 소원은 당신의 사랑
하는 종이 건강하게 다시 단위에 서서 우
리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
고 싶습니다.
이 작은(?)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도
들의 바램처럼 120세까지 함께 가요!
♡×♡×♡×♡×♡×♡

목사님을 사랑하는 어느 성도가
.....
서는 석가모니의 뼈에서 나온 진신 사리
나 거대한 불상과 탑을 자랑하고, 마호메
트는 거대한 사원이나 무덤을 자랑하지
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갇
혀있지 않고 부활하여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
건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며 영생복
락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사람, 예수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저는 재수를 하고 휴학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먼저 4학년이 된 친구들은 취업난으로 무척 고생했었고, 그 고충을 저에게 토로하곤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독이며 응원했지만 솔직히 그 친구들의 고통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 그 상황에 직접 처하지 않았던 터라 마음으로는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회사마다 서류 심사부터 실무 면접까지 쉽게 통과하고 최종 면접에 이르자, 저는 내심 이런 교만한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던데, 실제로 겪어보니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다 저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고, 갈 회사가 모두 사라지자 스트레스로 며칠 새 잇몸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먹고 자고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지요. 그제야 친구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깊이 통감하게 되었고, 저 자신은 물론 친구들의 취업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배는 희귀한 피부병이 생겨서 몸도 마음도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배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해보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큼일지 100%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최근에 제 피부에 작은 문제가 생겨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병원에 가야 하나 고심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일주일 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선배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나는 일주일 만에 나왔지만 선배는 아직도 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버거울까. 처음으로 선배를 위해 진심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몸으로 직접 겪은 후에 통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 알고, 부모가 되어본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빌립보서 2장 6~7절).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셨기에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끼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셨기에 사람에게서 받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기에 육체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시지요.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통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시지요.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몸으로 비천하게 태어나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장성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신은혜 성도
dopal0203@naver.com

.. 빛이 되리라 ..

열정의 사람

에드 캣멀의 저서 ‘창의성을 지휘하라’에서, 열정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과거에 과묵한 성격으로 악명 높았다고 한다.
뛰어난 머리와 치밀한 논리력, 그리고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일쑤였으며, 그것을 통해 상대방과의 협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협상의 달인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합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일에 대해 자신감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떤 불합리한 꾀변으로 누르고 압박해도, 끈질기게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본인을 설득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한참 아래의 부하직원이라도 그를 인정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대방의 열정을 존중했고, 그것이 그의 사람 보는 기준이었으며, 열정을 보이는 사람의 결심을 늘 인정해주었다.
벤젤라 더크워스의 저서 ‘그릿(GRIT)’에서 역시 성공자의 자질로 열정과 끈기 두 가지를 든다. 열정과 끈기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은 많아도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흔치 않다.
목사님께서도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장 중요한 일꾼의 덕목으로 말씀하신다.
이제 나 자신을 한 번 돌아보자.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의욕과 열정 있는 자인지, 아니면 무기력하고 나태한 자인지, 혹시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사명에 부도를 내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늘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 열정의 대명사 우리 목사님을 이젠 정말 닮아가야 할 때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지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9~20절)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